평소와 같은 술집 알바

그러나 오늘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다.

좋은 소식은 손님이 별로 없다는 점!

심심해서 시작한 알바이긴 하지만,

매번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할일이 적은게 최고라는 걸 알게됐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

어제 맡은 분홍색 향기가 오늘 또 느껴진다는 것이다.

후우… 어제처럼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거만 아니면 좋을텐데

신선한 자극이긴 하지만

신선하다 못해 이상한 인연이 생기는 건 사양이다.

무엇보다 머리아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평범.

그래. 평범한게 최고니까.

애써 부정했지만 몸은 이미 향기에 반응하고 있었다.

평범한 삶이 좋다면서, 내심 새로운 자극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향기… 이번엔 누구일까?

1. 포니테일의 스포티한 여자

2. 갈색 머리를 한 수수한 분위기의 여자

3. 금색 장발에 세련된 치장을 한 여자

(페이드 아웃)

> 금색 장발에 세련된 치장을 한 여자

(페이드 인)

오늘은 많이 안 바쁘네… 앗, 마법의 문장....

딸랑 - 생각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방금 스쳐 지나간 향이다.

근데 이 사람은...?

2명이요

허구한 날 매일 남자가 바뀌어서 오는 손님이다.

맨날 내가 바쁠 때 와서 가까이서 볼 일이 없었는데, 남자가 많은게 이해갈 정도로 고급지고 아름답게 생겼다.

오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랑 오셨네.

............어? 뭐라고? (어이없는 표정)

아차, 생각으로 말한다는 게.

오늘따라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야 너 방금 뭐라고 했냐고.

아,아니.. 이렇게 이쁘신 분이 왜 오늘은..! 아니 이게 아니라.

진짜 대참사다. 쥐구멍에 숨고 싶다..

하..한 번만 봐줄게.

그녀는 이쁘다는 말에 화가 조금 풀린 것 같다.

생각보다 칭찬에 약한 것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친구 1: 빨리 가서 얘기하고 와 ㅋㅋ

야 그걸 어떻게 해? (조금 취한 표정).

주문을 받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다. 고급지면서도 진하지 않은 우아한 연한 장미 향이 나는 것을 보니 아까 그 여자인 것 같다.

후으.....야 알바.

예..예?

나랑 사귈래?

1. 어.. 잘못들었는데 뭐라고요?

2. 네?

에? 내가 방금 뭐라고 했더라? (진짜 까먹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아~ 기억났어 나랑 사귀자고! 나 너 마음에 들었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녀는 나에게 술냄새를 풍기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술 많이 드신 거 같은데 그냥 쉬시는게...

아니? 나 멀쩡한데? (누가봐도 얼굴 빨갛다.) 그래서 사귈 거야 말 거야?

그녀는 생각보다 더 막무가내였다. 아까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해서 강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다.

친구1: 야 너 까인거같은데? 그냥 다시 와서 앉아~(웃음)

아니거든? 슬슬 다 와가는데 재촉은...!

야 너 시간 없어 어떡할거야? (주인공에게 다가감)

그녀는 어째서인지 나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올수록 아까 맡던 향은 서서히 짙어져 갔다.

저는... 아직 누구랑 사귈 준비가 안되어있는거같아요. 게다가 지금 너무 갑작스럽고 좀 당황스러워요. 죄송합니다.

너.. 너 진짜 후회한다? 나 같이 예쁜 사람이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다는데..!

예쁜건 둘째치고 너무 막무가내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래도 되는건가?

손님,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정색)

그녀는 내 얼굴을 흘깃 보곤 조용하게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다른 손님 무리) 저기요! 여기...

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여전히 다시 나의 정신 없는 알바라이프로 돌아갔다.

사장: (주인공)아 지금 술집도 적적한 김에 지금 남아 있는 테이블에 안주 서비스라고 하면서 주고와.

네 알겠습니다~

알바도 얼추 시간도 많이 지났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저 사람(한서령)은 아직도 있지? 게다가 술병도 아까보다 잔뜩 늘어났잖아?! 어째 불길하다.

친구1: 야 마지막으로 다시 해볼래? 저 알바생이 너 걱정되는 거 같이 보이는데?

(근데 사실 주인공은 사실 별 관심없음 그저 늘어난 술병에 감탄만 할 뿐임)

하ㅏㅏ아? 이버네야 말로오 저 남자…번호 꼭 얻어갈그야ㅑ(딸꾹)

야!! 알바!!

아이고 이 진상아..(혼잣말)

역시 내 불안은 틀리지가 않는다. 슬슬 짜증난다. 이번에도 그러면 강하게 거절 해야겠다.

네 손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나는 최대한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필요한 거 있지 이자시가ㅏㅏㅏㅏㅏ 너 번호!! 버노 당장 찍어!!! 마지막 기회야!!

(단호하게)싫어요.

뭐..뭐라고?

(짜증난다는듯이) 싫다고요.

표정이 일그러져서 표정관리가 안될 쯔음에 그녀의 친구가 급하게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그녀가 머문 자리에는 연한 장미 향만 맴돌고 있었을 뿐이다.

(인정 할 수 없다는 말투로)나 여기 다시 올게에~!!